

몰트만의 희망의 윤리를 통한 생명의 윤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김 막 미**

논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몰트만의 『희망의 윤리』라는 저서를 통하여 생명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자 함이다. 그의 희망의 윤리는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이 때에, 결국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서의 논리를 펴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몰트만의 저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 분석적 접근을 취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하나님 형상성을 통한 생명의 존엄성의 발견이다. 둘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케 되는 영원한 생명을 논한다. 셋째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서 공동체 연대로서의 책임감을 논한다. 넷째, 인간 생명의 존엄을 넘어 창조 공동체 안에서의 자연과 우주의 생명에 대한 경외를 발견할 것이다. 다섯째, 생명을 살리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볼 것이다. 즉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살롬을 이루는 새로운 창조를 볼 것이다. 여섯째 생명을 변화시키는 종말론으로서의 희망의 윤리를 통하여 종말론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볼 것이다. 결국 이 논문은 종말론과 사회 윤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주제어: 윤리, 생명, 희망, 종말론, 정의와 평화와 사랑

* 이 논문은 앞으로 제출할 박사논문의 일부를 밝히는 바입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숭실대학교 조직신학 박사과정생

2013년 2월 14일 접수, 3월 5일 최종수정, 3월 19일 게재확정

I. 서론

세계는 희망의 상실과 절망이라는 담론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첨단을 달리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 같았지만, 다만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 사회 경제 질서에 대한 낙담과 더불어 테러와 폭력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역사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현실은 냉소주의와 회의주의가 난무하게 한다. 게다가 인류 공동체 내에서의 빈부의 격차뿐 아니라, 한 민족 공동체 내에서의 빈부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경시되고 있는 이 때에 생명의 위기는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 이처럼 생명이 생명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잣대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 몰트만(Juergen Moltmann)은 그의 희망의 윤리를 통하여 생명 자체에 대한 절대적 긍정과 수용을 확신한다.

희망의 신학을 통하여 종말론을 새롭게 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시키는데 타고난 공헌을 한 몰트만은 이제 희망의 윤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다루었던 글들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것은 그의 처녀작인 희망의 신학에서 논의의 중심이었던 종말론과 마지막 저서인 윤리를 연관시켜서 결론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신원하는 몰트만의 종말론이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논자는 신원하(신원하, 2000: 365-388)가 몰트만의 종말론과 윤리에 대한 그의 논문에서 밝힌 것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본 논문을 논증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은 종말론과 윤리학과 관계에 대해 학문적인 관심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조직신학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한 교리로 생각한 반면, 윤리학이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과 도덕을 다루는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몰트만의 신학이 사회윤리를 제공하고 있고, “종말론이 미래에 대한 교리이지만 현재에 관한 논의와 연관되어 있으며, 오늘 신자의 삶의 태도, 즉 윤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리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신원하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종말론과 윤리의 관계성 속에서 이 논문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원하의 사회윤리에 대한 논의가 종말론과 윤리와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논문이었지만 그의 논증의 한계는 몰트만의 초기 작품인 희망의 신학에의 지나친 의존과 일부 중기 저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원하가 몰트만의 종말론이 미래적 종말론으로서 세상을 변혁하는

사회윤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너무 강조 하다보니 이 땅에서의 제도와 질서에 관한 것들이 종말의 질서와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즉 현재의 삶을 모순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실은 몰트만의 종말론이 적극적인 사회윤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편협한 안목을 낳는다. 헬무트 티리케(Helmut Thielicke)도 종말론과 윤리를 연관 속에서 보고 기독교 윤리를 현재와 미래, 이 시대와 다가오는 새 시대(aeon),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논하는 학문으로 규정하였다(Helmut Thielicke, 1966: 39-47).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홍순원도 『헬무트 티리케의 신학과 윤리』라는 책에서 티리케가 종말론과 윤리를 관계지어면서 그의 윤리가 옛 에온과 새 에온 사이의 긴장 영역을 나타내는 새로운 현실이해로 본다. 그럼에도 홍순원은 티리케의 관심이 그리스도인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홍순원, 2005: 154-161). 이러한 사실은 몰트만이 종말론과 윤리를 연관지어면서 현실변혁적인 희망의 윤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의 목적은 몰트만의 희망의 윤리를 종말론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생명의 중요성을 논하기 위함이다. 그의 희망의 윤리는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윤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 윤리를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희망의 윤리를 통하여 종말론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종말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뜻하는 바는 종말론 속에 희망이 있음같이 사회윤리에 대한 희망도 종말론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죄와 분열과 불화의 현실들을 새롭게 변혁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몰트만의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Moltmann, 1993: 15-18).

이 논문의 연구 방법론은 문헌 고찰을 통한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이제 몰트만의 절대적인 생명의 긍정과 수용은 어떤 윤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논증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종말론과 윤리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윤리로 나아가고자 한다.

II. 희망의 윤리를 통한 생명의 윤리

1. 하나님 형상성을 통한 생명의 존엄성

먼저 몰트만은 인간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성에 근거를 두고 생명의 존엄한 권리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 형상성¹⁾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와 더불어 생명의 정당한 권리로서의 인권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창조신앙에 근거함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6에 따라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인간은 단지 자연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했으며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모든 생물로부터 구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 놓여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선과 정의에 상응하고 하나님의 땅을 돌보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Moltmann, 2012: 219).

이러한 하나님 형상성을 몰트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 형상성은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하나님 형상성은 첫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이며, 둘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우주적이고 파괴될 수 없으며 양도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 속에서 명백하게 표현되고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잠정적이어서 하나님께 상응하고 책임적인 삶을 통해 실현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모순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Moltmann, 2012: 72). 그런 점에서 몰트만은 모든 인간은 인간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파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비인간적으로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그런데 몰트만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성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중요한

1) 몰트만의 하나님 형상성의 의미에 대하여 손규태는 4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 형상은 창조 설화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들에서 통전적 인간을 말한다. 이러한 인권에서 폭군들에 대한 저항권을 도출해 냈다고 본다. 둘째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에 상응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성은 인간 이외의 피조물과 더불어 땅과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의 근거가 된다. 넷째로 하나님의 형상성은 인간 자신의 미래와 후손들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권리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손규태, 2001:318-321).

2) 몰트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에서 참된 인간성은 참된 신의 신성을 알고 그 신성에 관계된 그런 인간성을 말할 때만 진정한 인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인간생명의 최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본다(Moltman, 1975. 4: 23). 이러한 주장은 위의 주장과 상통하다 하겠다.

문제이다. 그는 서구의 인간상이 플라톤(Plato)의 육체-영혼의 이원론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사실은 육체가 하나님 형상성으로부터 벗어나 경시되도록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몰트만은 하나님 형상성이 영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의 전체적 존재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Moltmann, 2012: 87). 즉 인간 생명은 육체와 영혼의 전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유기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Moltmann, 2012: 61). 이러한 하나님 형상성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된다면, 이것은 모든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해당되고 인간의 모든 상황 즉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태어난 생명과 태어나지 못한 생명까지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인간을 상이하게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Moltmann, 2012: 88).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몰트만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평등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몰트만의 주장은 하나님의 형상성의 유비를 전통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만 보았던 것에서 한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발전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육체성 안에서 종결된다”고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자 프리드리히 외팅어는 라메트리(J.O. de La mettrie, 인간이 동물과 동일하게 영혼 없는 기계에 불과하며,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단지 복잡성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주장한 프랑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역자주)에 대항하여 말하였다. 인간의 육체성 안에서 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은 오늘날 인간의 육체성의 컴퓨터화에 대항하는 필수적인 반대 프로그램이다(Moltmann, 2012: 72-73).

여기서 몰트만은 라메트리에 대항한 외팅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참된 생명은 나로 존재하는 육체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은 살아 존재하던 생명, 부정된 것이 아닌 긍정된 생명, 곧 사랑받으며 수용된 생명을 의미한다(Moltmann, 2012: 101).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성에 대한 이러한 진술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인간의 영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육체까지 존엄한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영적인 측면에 한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논지는 토론의 여지를 남겨놓는다고 보아야 하겠다(Calvin, 2006: 367-368).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성에 있어서 인간생명을 영혼과 육체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았던 몰트만은 이것을 자연과 연결해서 논하고 있다. 그는 인간 존재가 인격 안에 있

는 자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존재가 그의 주변을 둘러싼 자연과의 조화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Moltmann, 2012: 88).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특별한 존재 규정은 오직 창조 공동체 안에서만 유효하여 인간은 단지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격이라고 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구의 문명사에서 자연의 예속과 육체의 도구화를 정당화시켰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창 1:28)는 말씀에 대한 이로부터 파생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규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Moltmann, 2012: 135-6). 몰트만이 하나님 형상성에 근거한 인권의 주장은 그의 신학적 윤리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주장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연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창조 공동체의 개념을 통하여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몰트만은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았지만 인간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 공동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사명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oltmann, 2012: 62).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성의 진정한 의미에 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몰트만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성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더불어 인간답게 살 진정한 인권으로서의 생명의 고귀한 권리를 내포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은 절대적으로 긍정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존엄한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몰트만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케 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성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몰트만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케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역설한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규정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근거는 고갈되지 않고, 창조적인 생명의 충만함 속에 있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생명성을 지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그 원천을 둔다. 이러한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인간 생명에 대한 분명하고도 무조건적인 긍정을 의미한

다는 것이다.

성서에서 구원이 완전하게 생명으로서 이해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그 자신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며, 이 세계 속으로 오심을 통해 이 세계의 생명의 원천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신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8:1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모든 감각으로 인식되었던 영원한 생명이다(Moltmann, 2012: 56).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요일 1: 1-2)” (Moltmann, 2012: 57).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 임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테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인간적 생명이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안에 내주하는 생명이다. 이러한 생명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가? 몰트만은 요한복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살리시는 성령 안에서 경험되며 언젠가 전체 미래 세계의 생명으로 된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공관복음서, 바울서신, 요한서신이 모두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으로, 테러와 죽음이 만연한 이 세계의 구원 속으로, 이 창조의 완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랑은 생명의 자기 전달이다. 이와 함께 영원한 생명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생명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계 속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참된 생명이 나타난다(Moltmann, 2012: 57).

여기서 몰트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연관성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현세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기

대할 수 있는 것인가? 몰트만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사랑받는 생명 속에서 모든 순간에 의미 있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헤겔(G. W. F. Hegel)이 정신(Geist)이라고 일컬었던 것처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진정한 시작이기 때문이다(Moltmann, 2012: 63).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 8: 38-3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요일 4:9).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요일 4: 16).

이상에서 보았을 때 구약과 신약의 의미에서 영원은 생명의 양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질(質)에 대한 규정이다. 영원한 생명에서는 무한한 생명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충만하게 된 생명이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 몰트만은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보에티우스(Boethius)의 “영원은 생명의 무제한적이고 전체적이며 동시적이며 완전한 향유이다”라는 영원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즉 사람들이 시간을 허무하고 만회할 수 없는 덧없는 삶의 순간으로서 경험하는 이것은 그리스적 개념으로서의 크로노스(chronos)로 표기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무시간적인 생명이 결코 아니다. 이때 카이로스(kairos)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크로노스가 사라진 그 자리를 대체한다. 공허하고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크로노스)은 성취된 시간(카이로스)으로 변하며, 모든 성취된 순간은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향유를 미리 맛보는 것으로 변한다. 그런 점에서 모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기능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 낸 유용(有用)과 무용(無用)의 가치를 넘어서는(Moltmann, 2012: 58-59). 그렇다면 여기서 몰트만이 주장하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 생명의 어떤 부분을 포괄하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은 단지 영적인 측면에서만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

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과 생명과 충만함 속에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체 창조를 포괄할 만큼 다채로운 성격을 지닌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윤리적 이상만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윤리적 이상의 측면을 지니기도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병자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의 충만함 속에서 세상적이고 육체적이며 감성적으로 경험되기도 하는 나라이다.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사로잡혀 억류된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를 모든 감각으로 경험한다. 그러므로 이 땅위에 임하는 영광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전체 피조물들의 동경의 성취가 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육체적 차원은 특별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의 사멸성에 직면하여 그동안 꿈꿔온 영혼의 불멸성 안으로 도피하고 현세의 삶을 결합 있는 삶이라고 믿는 가운데 이를 방지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시고 살리신 생명은 새로운 창조의 육체적 생명의 전령이자 시작이다(Moltmann, 2012: 54).

여기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형상성을 영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육체성과 연관해서 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도 단지 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육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보고 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전인적이고도 통전적인 전망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던 병자들, 귀신들린 자들, 눌린 자들, 각색 병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가 이 땅에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건강과 생명과 충만함 속에 있는 생명인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은 그를 신적으로 비범한 인간으로 생각하게 만든 단순한 역사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며, 또한 예수와 함께 병든 현재 속으로 들어오시는 메시아적 표상인 것이다(Moltmann, 2012: 54).

이처럼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는 전체 생명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에 대한 자유를 열어준다. 하나님 나라는 옛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하는 회개를 요청한다. 회개는 옛 세계의 조건 아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생명을 앞당겨 선취함이다. 회개는 불의한 이 세계와 대립하고 그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Moltmann, 2012: 54). 따라서 생명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 자신 안에 살아갈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파괴하거나 혹은 그 자신이 파괴할 수 있는 소위 살만

한 가치가 없는 생명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기능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다(Moltmann, 2012: 59).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향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희망은 죽음에 대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생명에 대한 사랑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일을 고무시킨다(Moltmann, 2012: 60).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명이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된 채 교회 생활로만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영의 생명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된 생명이기 때문이다.

3.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서 공동체 연대로서의 책임감

인간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한 영원한 생명을 담지한 자들로서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웠던 몰트만은 이제 인간 생명이 이렇게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함을 신학자로서 반성하고 자각하며, 이를 위하여 공동의 생명으로서 서로 연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할 것을 공동체의 연대를 통하여 요청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애를 이루기 위해 일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본다. 기독교 공동체의 신비는 그것이 많은 가정과 가족 교회들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공동체들로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공동체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형제 자매애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며 비인간성에 함몰된 사회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oltmann, 2012: 6).

몰트만은 이 땅의 윤리는 공동체로서 연대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를 사도행전 4장 31-35절을 들고 있다. 그의 주장을 보면 첫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다. 둘째, 공동체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단지 믿는 자들의 무리라는 이유로 한 마음과 한 영혼을 이

루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사권의 하나님이며, 성령님을 통하여 풍성하고도 충만한 생명이 있는 공동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셋째,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리스도 부활의 희망의 영 안에서, 공동체적인 사권의 영의 경험 속에서 개인적인 재물이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물이 되었다.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 경험이며,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임하였던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궁핍이 만연한 사회에 대한 반대상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충만한 생명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Moltmann, 2012: 157-158). 연대의 구축을 통해 이 땅의 윤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 문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첫째, 인간의 인격은 개체가 아니다. 라틴어 어원에 따르면 ‘개체(Individuum)’는 헬라어의 ‘원자’(atom), 곧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마지막 부분과 동일한 단어이다. 그러나 인격(person)은 현대 인격주의의 창시자 마틴 부버(M. Buber)가 포이어바하(L. Feuerbach), 헤겔(G. W. F. Hegel), 홀더린(F. Holderlin)에 의거하여 ‘나-너-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다. 공동체 안에서는 인격만이 존재하며, 인격적 관계 속에서는 인간의 사권 공동체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의 인격이 지닌 자유는 개체화를 통해 보존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공동체 능력이 있고 공동체를 원할 때만이 보존될 수 있다. 둘째, 사회 역사로부터 추론되는 자유는 개방적인 공동체로서 정의된다는 것이다. 서로의 삶에 동참함으로써 서로 함께하는 공동의 삶이 생겨난다. 이것을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기독교 사회 이론에서는 연대성으로 정치적 영역에서는 평등으로 일컬으면서 연대의 공동체로 요약한다. 자유로운 공동체는 사적으로 자유로운 개체들이 모인 무리가 아니라 오히려 인격들이 약자와 병자들을 대변하는 공동체이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하는 자유의 개념이 바로 휴머니즘적인 자유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글로벌적인 획일 문화는 연대의 문화가 아니다.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희망의 윤리는 글로벌적인 획일 문화에 대항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이 다양성 안에 미래의 가능성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Moltmann, 2012: 157-162).

이러한 사실은 가톨릭의 사회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동체에 앞서 인격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인격에 앞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히려 인격과 공동체는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일한 원천에서 유래하며

상호 간에 서로 의존한다. 한 인간의 개체성과 사회성은 동시에 육성된다. 그러므로 원칙상 사회적 인권에 앞서 개인적 인권의 우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간에 연대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인간의 권리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Moltmann, 2012: 220).

이러한 주장은 빈부의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공동체로 귀결되게 한다. 서로가 긴밀하게 결속하는 연대(連帶)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은 부요해질 수 있다고 본다. 사회의 거대한 관료주의적 제도들 안에서는 항상 궁핍이 지배하지만, 바닥에서부터의 자발적인 공동체들의 연대의 문화를 통하여 생명의 부요함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연대의 문화를 통하여 실업자와 노숙자, 극빈자와 소외된 자들의 비참함에 대한 도움으로 많은 생명은 구출되며, 이러한 연대문화의 구축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후기 자본주의적 사회를 위한 기본 지침을 구상하고자 한다(Moltmann, 2012: 158-159). 이러한 몰트만의 주장은 기독교 공동체의 연대를 통하여 사회의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인류는 운명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할 문제는 비단 빈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늘날 핵으로 인한 위협과 더불어 불법과 테러 전쟁 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은 인간 생명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 공동체로서 연대를 이루어 서로 돕는데 있어서 정의가 요청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생명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정의가 요청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불의와 불평등은 사라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연대의 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몰트만은 인간의 운명 공동체를 넘어서 창조 공동체로의 생명에 대한 경외로 그의 논의를 확대시킨다.

4. 인간 생명의 존엄을 넘어 창조 공동체 안에서의 자연과 우주의 생명에 대한 경외

인간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한 영원한 생명을 담지한 자들로서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웠고 또 공동의 연대를 통하여 생명을 살림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몰트만은 이제 자연과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생태학의 위기는 자연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인간 문명의 재앙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는(Moltmann, 2012: 151) 몰트만은 자연의 생명과 인간 생명을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몰트만이 상정하는 생명의 개념은 무

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몰트만에 있어서 생명의 개념은 단순히 인간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생명을 모든 살아 있는 존재, 동물과 식물과의 연관성 속에서 본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땅의 피조물이며(창 2장), 노아의 홍수 기사(창 7장)에 근거하여 동물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홍수 이후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인간은 “모든 살아 있는 존재”와 맺은 생명의 계약이다.³⁾ 따라서 그는 성서에 나오는 단어 “모든 육체”(Kolbasar, 창 10:10-11) 는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를 가리키며, 인간 생명을 이 땅의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와 포괄시킨다. 여기서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은 결코 인간 중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그는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려고 한다. 인간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중심점으로 내 세우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어디서 유래하였으며, 인간 생명의 어떤 측면이 자연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의 주체 개념은 이 세계를 주체와 객체로 분리시키는 것에서 유래하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중심적 지배위치를 보장해왔다. 이것은 현대 문명의 이데올로기가 오로지 인간만이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다른 모든 생물은 인간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이용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했다(Moltmann, 2012: 222). 그런 점에서 몰트만은 현대 서구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한계가 없는 ‘지배에 대한 의지’라고 진단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일방적으로 성장, 확장, 정복을 지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가치관이 생겨난 이유를 그들의 종교 안에서 찾고 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제나 절대주체로서의 전능자로 이해되었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지배의 수동적인 객체로 생각되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 이해에 전적으로 상응하여 자신을 이 세계의 지배자나 의지의 주체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세계 위에 군림하는 지배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이 세계의 주님이신 하나님에게 상응할 수 있다고 믿었다(Moltmann, 2012: 67).

이처럼 인간중심적 사상은 생명체의 우주 안에서 인간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물에 대한 인간의 차이를

3)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짐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창 9:9-11).

특징으로 가치평가 하였다. 이로부터 자연에 적대적인 인간의 견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Moltmann, 2012: 61).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는 현대 세계의 과학기술 문명을 생태계의 위기로 몰고 갔다. 즉 과학기술 문명의 확산은 많은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의 멸종을 야기한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통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 화학적 비료들을 통한 토양의 오염, 열대우림의 벌목, 초원의 과잉방목, 사막의 확장추세, 인구의 증가, 쓰레기 배출 등을 통하여 인간의 생태계는 균형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Moltmann, 2012: 133). 이러한 인간의 자연파괴에 대해 몰트만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한다.

이에 자연의 위기가 인간 공동체의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인식한 몰트만은 노아의 계약(창 9:9-10)에서 인간이 동물과 함께 구원받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면서 인간 생명이 자연의 생명보다 특별히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거부한다. 창조자이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은 그들 모두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계약의 동반자이며 동일한 존엄성과 권리의 소유자들이다(Moltmann, 2012: 142-143). 따라서 그는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성 안에서 다른 모든 생명체와 함께 자연의 물질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연과 함께 창조되었고 자연과 더불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Moltmann, 2012: 222-223). 이것은 모든 신학에 있어서 창조된 세계의 중심은 인간도 자연도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서 출발하게 한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할 때, 인간과 다른 자연세계의 모든 존재를 창조 공동체의 ‘동료 피조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공동의 생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만이 안식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안식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한다(Moltmann, 2012: 113).

몰트만은 하나님을 자연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자연의 소유자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시 24:1)(Moltmann, 2012: 149). 그러므로 이 땅의 자연은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그의 고유한 권리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자연을 정복과 지배와 다스림보다는,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올바른 이

해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땅의 자연 안에서 모든 생명체와 함께 동일한 동료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일방적 지배에서 상호 간의 공동체로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단지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생태학적 위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의 회개(전향)가 불가피하듯이 모든 생명에 대한 기본 가치와 신념에 있어서도 회개가 불가피하다(Moltmann, 2012: 67-68).

그렇다면 자연의 위기와 더불어 일어나는 인간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 공동체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몰트만은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먼저 삼위일체의 내적인 교통과 사귀를 통하여 해결점을 제시한다. 삼위일체 신학에 있어서 창조는 성부가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은 모든 피조물 위에 부어졌으며, 모든 살아 있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간다. 이러한 사실은 만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연성이 귀결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대한 삼위일체 신학적 개념은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 곧 상호 간의 내주와 쌍방 간의 침투에 가장 근접한다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인 교통에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통이 서로 상응한다. 창조자 하나님의 영은 그의 피조물 안에 거하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된다. (행 17:28) 즉 피조물은 서로 함께 더불어, 서로를 위해, 서로 안에 존재한다. 일방적 지배가 아닌, 관계의 상호성이 생명의 원리인 것이다. 생명은 어느 곳에서나 사귀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통이다(Moltmann, 2012: 136-137). 이러한 제시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풍성한 관계를 맺으시는 공동체적 하나님이다. 여기서 서로 사랑으로 관계 맺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제시된다(요일 4:16).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배와 예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와 생명을 장려하는 상호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상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개별적 인간 주체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이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형상이라고 보게 한다(Moltmann, 2012: 68). 따라서 “하나님을 모든 만물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한편으론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 안에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론 기독교의 우주적 영성을 의미한다”(Moltmann, 2012: 138).

위와 같은 사실은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한다.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의 화해(골 1:20)를 발견하고,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대가를 치르신 귀중한 존재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우주적 그리스도론에 대한 신앙을 통해 인간은 자연에 대항하여 그와 투쟁하기보다 자연과 화해하고, 또한 자연은 인간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우주적 방향 설정이 뒤따르게 한다. 여기서 몰트만은 교회는 구원을 인간 생명에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곧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든 피조물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처럼 “피조물의 탄식”(롬 8:19)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도 천사와 같이 교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경외감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Moltmann, 2012: 139). 왜냐하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몰트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내주라고 주장한다. 온 땅의 피조물에 하나님의 내주, 곧 쉼이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의미한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민 35:34)(Moltmann, 2012: 150). 여기서 몰트만은 이 땅의 생존능력을 장려하기 위해 먼저 이 땅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모든 생명을, 선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과 비인간의 생명에 대한 몰트만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김형민이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적 인간론』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몇몇 학자의 의견을 들으며, 몰트만의 신학적 인권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논문의 전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호네커(M. Honecker)는 인권을 신학적으로 합법화하려는 몰트만의 시도에 대하여 인권사상의 유래는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영향의 산물이 아니라 계몽사상의 열매로서의 보편적이고 자연적 윤리이기 때문에 신학적 이론이나 해석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요구가 지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학자 알폰스 아우어(A. Auer)는 몰트만이 인간과 인간외의 모든 피조물들

에게 등가(等價)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비판을 한다. 몰트만이 인권을 위한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과 인간의 상응성과 유비에 근거해 논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연의 상응성을 증명할 수 없음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하나님과 자연의 상응성은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중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은 이러한 부분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은 인간과 자연에 동일하게 활동하시지만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주장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공동체라는 한 집단의 개체로 보는 관점을 거절한다. 마지막으로 김형민은 몰트만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리에 두고 인권을 오직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연과 차세대의 권리까지 확대하여 논증한 것은 몰트만의 인권학적 기여로 본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적인 적용에 대하여 단지 신학적인 사유만으로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김형민, 1999: 311-317).

여기서 논자는 알폰스 아우어가 주장하는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모든 피조물과 등가물일 수는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자연에 대한 지배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한,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네커의 주장에 있어서, 물론 기독교적인 사유만으로 세계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요구가 다 지지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권사상의 유래가 기독교 신앙의 산물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몰트만이 주장하였듯이, 창세기 1장 26-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권리를 부여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인간이 가장 존엄한 가치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몰트만이 인간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파괴와 불법으로부터 보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위치를 모든 다른 피조물과 똑 같은 위치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인간의 하나님 형상성에 대한 주장에 모순되는 제시가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몰트만이 주장하였던 것처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은 중요하게 부각시켜야 할 것 같다.

이상에서 김형민이 논증하였던 것처럼 인권을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몰트만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 몰트만은 생태 윤리의 본보기를 ‘자유와 정의를 위해, 평화와 이 땅의 미래를 위해’라고 현시하고 있다(Moltmann, 2012: 148). 그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이 땅과 더불어 온 우주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생명 윤리의 적용을 온 세계뿐만 아니라 광활한 우주까지도 넓혀가게 한다. 따라서 이 땅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까지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윤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이 땅에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이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 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정의로운 삶과 평화와 사랑의 삶을 요청하는 몰트만의 주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5.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의, 평화, 사랑

(1) 생명을 살리는 정의

인간 생명 뿐 아니라 자연과 우주속의 모든 생명을 존귀한 생명으로 상정하고 인류 공동체가 함께 생명의 위기에 대처해 나가기를 회구하는 몰트만은 이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요청하고 있다. 그는 라틴어 명언인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정의를 행하라”는 대신 정의가 평화와 생명을 창조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정의를 행하라”를 외치고 있다(Moltmann, 2012: 164). 몰트만이 주장하는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간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에 어떻게 상응해 왔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보겠다. 한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고대 국가론에 따른 신들에 대한 숭배에 대하여 몰트만은 신과 인간의 행위-결과의 인과응보에 따른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의 신들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가 잘못되었을 때는 전쟁이나 전염병,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몰트만은 이러한 인간적 정의에는 진정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Moltmann, 2012: 169). 또한 행위결과의 연관성 속에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고대 인도의 카르마 이론(Karma-Lehre, 윤회설)도 필연성과 함께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는데 즉 “살아서 행한 그대로 죽음 이후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인간은 그의 선하고 악한 행위와 함께 그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몰트만은 이러한 카르마 법칙의 기초도 인간의 불평등

이라고 보았다(Moltmann, 2012: 172).

구약성서에서도 이러한 행위-결과의 연관성이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러한 표상들에 대하여 몰트만은 두 가지 근거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고대 인도의 카르마 이론과 구약성서의 행위-결과 연관성의 이론은 선한 운명에 대한 예견된 약속이나 나쁜 운명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고 본다. 행위-결과의 인과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행위에 대한 결과의 귀납적 추론은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정의가 지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둘째, 카르마와 행위-결과 연관성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운명을 무력화시키고 행위-결과 연관성을 단절시키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정의의 원리는 악한 행위와 저주를 철폐하고 이를 중단시킨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자유이다(Moltmann, 2012: 172-174). 과거의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몰트만은 정의를 개인적 미덕의 관점에서보다는 사회적 평준화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여기서 선을 선으로 보상하는 것과 악을 악으로 보응하는 것은 복수와 관련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평준화와 관련된다. 보상과 징벌이 정의로운 평화를 공동체 속에서 이룩하고자 한다면 적절하고 상황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때의 분배적 정의⁴⁾는 창조적 정의가 아닌 확정적 정의로서 ‘올바르고 정당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Moltmann, 2012: 174-175).

정의로운 보응의 기본 원칙의 또 다른 측면을 몰트만은 황금률에서 예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뜻이니라”(마 7: 12). 그러나 이러한 황금률은 서로 동등한 자들과 동등하게 강한 자들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불평등과 불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Moltmann, 2012: 175-176). 여기서 몰트만

4)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분배적 정의로서 ‘각 개인에게 그 자신의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것’이라고 보았다(Aristoteles, 2008:140-141) 참조. 존 롤스(John Rawl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를 넘어서 사회 제도가 가진 정의로 발전시킨다(Rawls, 1988) 참조. 에밀 브룬너(Emil Brunner)는 정의와 관련해서 사랑을 논하지만 정의가 사랑의 실현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Brunner, 2003:169-172) 참조.

은 마태복음의 황금률을 단순한 사회적 평균화의 관점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황금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고대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 단순한 인과응보의 원리로 평가절하하여 황금율을 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황금률은 분배적 정의가 아닌 것이다. 정기철은 신약에서의 황금률의 모태를 레위기 19장 18절(“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로 보고 황금률이 사랑 계명 속에 “네 몸과 같이”에 대한 해석이라고 본다. 따라서 황금률을 기독교 윤리의 근본 규범으로 보고 그리스도교적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의 사회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웃 사랑(눅 6:31;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과 원수사랑(눅6:27-35)은 예수의 동시적 요구이며, 황금률은 이웃사랑의 계명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성서는 이러한 황금률을 사회적 정의와 연결시켜 표현했다고 보고,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정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정기철, 2000: 87-92). 그러나 몰트만은 황금률을 사랑과 정의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지 않고 정의와의 관련 속에서만 보고 있다. 이것은 황금률을 단순하게 준대로 받는다는 식의 기본 보응의 원칙으로서만 작동하게 한다. 몰트만은 이제 자신이 주장하는 정의의 의미를 칭의⁵⁾의 의미와 연관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적이고 구원하며 바르게 교정하는 정의이다.

인간은 고통을 겪고 생명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교정(矯正)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온전하며 아름답게 변화된다. 하나님은 그 자신과 다른 생명을 파괴한 인간의 생명도 긍정하시는데 이를 통해 그의 생명을 바르게 교정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칭의론의 중요한 의미이다. 오직 은혜로 (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말미암아 죄의 희생자와 가해자는 모두 의롭게 된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죄의 육체로부터 자유케 된다. 하나님의 의는 확정하고 보응하는 의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하고 바르게 교정하며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는 의로운 해이시다(말 4:2)(Moltmann, 2012: 59).

몰트만이 주장하는 죄인들의 칭의로서 정의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데 까지 나아간다(롬 4:25). 이로서 회개가 완전해진다고 본다(Moltmann, 2012: 32). 그는 칭의의 정의론을 논하면서 희생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

5) 몰트만의 정의로서의 칭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Moltmann (2003)을 참조하라. 여기에 가해자와 희생자의 구분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실현으로서의 칭의의 의미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한 삶의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과거의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삶의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다.

으로는 가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희생자들에게 먼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자가 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희생자들의 편에 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몰트만은 가해자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용서와 의롭게 됨을 선포한다(롬 4:25).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죄악의 사슬도 모두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의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Moltmann, 2012: 182-183).

하나님의 정의⁶⁾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는 단지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위한 새로운 이 땅의 선취로서 존재한다고 본다(Moltmann, 2012: 184).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와 폭력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세우심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주십시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시 76: 9, 103:6)는 사실을 토로한다(Moltmann, 2012: 178).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정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과부와 고아와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얻도록 도와주며 인간으로 인하여 야기된 착취와 파괴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 보살피는 것까지 포함한다. 모든 만물을 생명으로 소생시킨다. 몰트만은 시편 96편: 11-13절과 시편 82편을 들어서 정의의 외침을 제시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정의와 심판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대한 판결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 호의, 도움과 치유, 칭의와 올바른 교정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 땅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Moltmann, 2012: 177-178). 그런 점에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생명을 살리는 영일뿐 아니라 또 한 이 땅을 살리는 영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의 영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창조적 생명력이라는 것이다(Moltmann, 2012: 114-115). 이러한 정의의 윤리는 우주적 부활의 환희로부터 유래한다. 부활의 기쁨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희망을 전파한다. 그 희망은 세상에서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앗아가 버리는 희망이다(Moltmann, 2012: 237).

6)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몰트만의 논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에서 심도있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정의의 하나님은 희생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Moltmann, 2011: 177-181).

그렇다면 몰트만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으로서의 정의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는 무엇보다 물질적 궁핍을 채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굶주림, 노숙, 실업으로부터 해방되는 일 없이 사회적 평화의 전제가 되는 평등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의 존엄성은 경제적 해방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역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청구하는 일 없이 경제적 해방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Moltmann, 2012: 185).

그런 점에서 몰트만은 기독교 윤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사귄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뒤따름 안에서 발견하는데 이는 그 안에서 ‘좀 더 나은 의’(마 5: 20)를 확연히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들과 더불어 공동체의 동료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몰트만은 정의를 정의와 연관해서 보는데 그것은 창조적이고 구원하며 바르게 교정하는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만 보는 것이다. 여기서 김회권의 이사야서 성서주석에 나오는 의와 공평을 살펴보면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법의 근간을 이룬다. 여기서 ‘의’(츠다카)는 하나님의 계약적 사랑과 자비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계약 구성원들이 이웃(특히 연약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와 친절을 의미한다. 공의 혹은 ‘공평’(미쉬파트)은 부당하고 불의한 강자와 유력자들을 견제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법적 정의를 말한다(김회권, 2006: 108). 이것을 보았을 때 성경의 정의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우선이겠지만, 사회 속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물론 몰트만이 정의로서의 정의를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돌보는 이웃사랑으로 확대시키고 있지만, 정의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보았을 때, 그의 의로서의 정의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일반사회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몰트만의 주장에 따라 고난당하는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2) 정의는 평화를 품고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희생자들과 가해자들 모두를 치유하고 바르게 교정하며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고 의롭게 하심을 이루는 정의였음을 보았다. 이제 몰트만은 이 땅에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과 평화가 창조됨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와 평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불의와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평화가 존재하는 않는다.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생명이 아닌, 죽음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전과 위협이 아니라 정의가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으로 귀결되게 한다(Moltmann, 2012: 64-65). 이것은 국가 사이에서도 당연히 정의만이 평화를 보장하지, 국가 혹은 제국의 지배세력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Moltmann, 2012: 165). 이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인간의 올바른 행동과 정의를 위해 수고하는 일 이외에 평화를 보장하는 다른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Moltmann, 2012: 64). 그런 점에서 평화는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의 임재인 것이다(Moltmann, 2012: 163). 따라서 평화가 역사 속에서 상태가 아닌 하나의 과정이며, 개인적 소유가 아닌 공동의 길이라는 사실이 뒤따른다(Moltmann, 2012: 65).

여기서 몰트만은 폭력적이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책임은 세계 변화의 윤리로서 곧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가운데 정의와 평화의 삶을 요청한다고 주장한다(Moltmann, 2012: 206). 또한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평화가 요청된다고 본다(Moltmann, 2012: 65). 그러므로 인류 역사 안의 항구적인 평화는 정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게 한다. 따라서 그는 정의만이 장기간 지속되는 평화, 곧 샬롬(Shalom)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 생명의 치유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들 가운데서의 평화, 자연의 피조물들과 함께하는 평화이다(Moltmann, 2012: 64-65).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이 땅의 모든 민족과 피조물을 위한 실제적 평화를 희망하는 운동이다. 하나님의 평화는 이 땅의 종말에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일이기 때문이다(Moltmann, 2012: 230).

그렇다면 몰트만은 핵무기와 테러의 위협 같은 폭력적인 세계가 어떻게 생동적인 세계로 변화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며 평화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향으로 받아

들이다. 그는 갈등과 전쟁, 미움과 폭력의 적대적인 세계 속에서 평화를 창조해 내기 위해 국가의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외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없고, 불법과 폭력과 테러가 진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것은 국가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또한 적을 선한 이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행해야 한다(Moltmann, 2012: 199-200).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는 이사야 2:4에 나오는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상징적인 일을 통하여 민족들 사이의 평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해하고 적용한다.⁷⁾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못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Moltmann, 2012: 190). 이처럼 치명적인 적대관계 속에서 칼이 보습이 되는 평화적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원수 관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데, 원수관계는 가해자의 삶을 파괴하지만 희생자의 삶도 파괴하기 때문이다(Moltmann, 2012: 200). 결국 정의로운 평화의 삶을 위해서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랑을 요청한다. 몰트만이 주장하는 창조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와 평화의 윤리는 더 나은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게 한다.

(3) 사랑은 정의와 평화를 품고

몰트만은 정의와 평화에 이어 사랑을 논하고 있다. 그의 사랑에 대한 담론은 산상수훈의 원수 사랑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화해와 평화를 제안한다. 이 땅에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사랑을 극복하는 사랑의 삶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7) 여기서 몰트만은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상징적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열방들간의 분쟁과 각 백성 사이의 갈등해결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르는 가운데 적대감을 이기고 원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함을 주장한다. 김회권은 그의 이사야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갱신된 시온산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득을 통해 살상용 무기인 칼이 생산용 농기구로 바뀌어 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사명을 오늘날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열방과 민족들이 야웨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 평화의 길은 터득되기 때문이다(김회권, 2006:119-128, 308).

이러한 제안에 있어서 먼저 몰트만은 불의에 반응하는 제3의 길로서 정의에 대한 갈망을 통하여 복수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신 안에서 먼저 원수에 대한 감정을 극복하고 적대적인 원수 안에서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수에 대한 파괴의 에너지를 평화와 생명을 창조하는 정의의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원수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수관계의 변용(變容,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몰트만이 제시하는 것은 창조적인 원수 사랑이다. 어떻게 창조적인 원수 사랑이 한 인간의 내면 안에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 상호 관계의 윤리는 내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는 너에게 행한다는 보복으로 악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지만 산상설교와 예수를 뒤따름의 삶의 윤리는 상대방에 대한 호의의 윤리, 창조성의 윤리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살인의 폭력으로부터도 생명의 힘이 생성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Moltmann, 2012: 201-202). 그렇다면 생명을 대적하는 원수관계를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자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변화된 생명의 능력에 대한 언급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원수사랑의 계명의 근원에서 발견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마 5: 44-45).

여기서 해와 비에 대하여 몰트만은 모든 생명체를 위한 실제적 힘으로 생각한다. 모든 갈등과 원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해와 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공동의 삶을 위해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똑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원수 관계를 극복하게 되고 원수 사랑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원수가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창조하신 것 같이 타자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끈다. 몰트만은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주장인 “원수사랑은 신념의 윤리가 아니라 원수사랑은 현실적인 책임의 윤리이다.”를 받아들이면서 인용하고 있다(Moltmann, 2012: 202-203).

산상수훈을 통하여 원수사랑을 설교한 몰트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랑을 가져와 이 땅에 흘러야 하는 참된 화해와 평화의 주장을 한다. 그는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1장에 따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사랑의 희생

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룩하셨다고 본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6-18). 이와 더불어 골로새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실제적인 평화에 이르는 우주적 차원이 부가되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로써 인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까지 하나님으로 인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 졌음을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적대적인 원수관계에서도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의 기적인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원수는 화해 된 자로,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공동체로 변화될 것을 주장한다 (Moltmann, 2012: 238-239).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원수관계를 소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미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식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미 이 세계의 한 가운데 내주한다면 불화 한 가운데서의 평화는 불화를 초월하게 될 것이다.

몰트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적대 관계를 같이 보습이 되는 평화적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그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기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의를 통하여 이루는 평화는 정의로운 사랑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은 결국 변증법적으로 관계한다. 정의나 살림으로서의 평화나 사랑의 계명은 분리되어 질 수 없다(정기철, 2000: 134)는 것이 몰트만의 주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삶을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요청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정의와 평화를 굳고히 세우는 매개가 되는 셈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생명에 대한 논의를 종말론과 사회 윤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 몰트만의 사유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III. 생명을 변화시키는 종말론으로서의 희망의 윤리

1. 이 땅에 충실하는 윤리

기독교 종말론은 그의 희망의 현실주의로 말미암아 이상주의로부터 자신을 구분한다. 그리스도 현실성은 실제적인 보편성이기 때문에, 기독교 종말론은 그리스도 현실성을 출발점으로 삼는 가운데 그의 미래의 지평을 발견한다(Moltmann, 2012: 201-202). 여기서 몰트만은 신학적 논의의 대상으로 이 땅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두 신학자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신학자들인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Ch. Blumhardt)와 디트리히 본회퍼(D. Bonhoeffer)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의 부활의 나라로 이해하면서 육체성과 이 땅에 충실한 현실주의를 주창하였다. 블룸하르트는 이 땅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 그러기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무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가 인간의 구체적 삶의 현실을 외면하는 가운데 주로 전도와 개종, 개인의 영혼구원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왔던 사실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6:33)는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1932년 초기 디트리히 본회퍼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블룸하르트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이 땅과 하나님을 하나 됨 속에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다.” 그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참고 견디며 우리에게 임한 모든 곤경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충실하게 머무는 믿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정을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땅의 비참함에 눈을 돌리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바라본다. 여기서 죽음의 법은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이다. 본회퍼와 블룸하르트는 성서가 지향하는 이 땅의 현실주의를 발견한 것이다(Moltmann, 2012: 118-119).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두 신학자의 주장을 매개로 하여 몰트만은 기독교 종말론이 현실과는 동떨어

진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실과의 연관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순간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몰트만은 종말론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기도로 깨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깨어 있음 속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선취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Moltmann, 2012: 6).

그러나 개인의 영적인 구원 없이, 개인의 구원으로 인한 거듭남 없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기독교의 공동체라는 것이 물론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영적인 거듭남의 사건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구원을 떠나서 단지 하나님 나라만 꿈꾼다면 그것은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은 것이다. 한 영혼의 거듭남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몰트만이 거듭남에 대해서 칭의의 정의와 관련해 언급하고 있지만, 인간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죄 사함의 은혜는 거듭남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자신의 희망의 윤리가 기독교인만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희망의 윤리가 되어야 함을 피력하게 한다. 그러나 비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이러한 종말론적 희망의 윤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실천가능한 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더 신학적인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먼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외침은 모든 믿는 이들이 받아들여야 할 귀한 가르침인 것이 사실이다.

2. 종말론과 희망의 윤리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는 몰트만의 종말론은 그의 마지막 저서인 희망의 윤리에서 이제 사회 윤리와 연관지어며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희망의 윤리로서의 종말론의 희망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옛날 외쳤던 것처럼 가난한 자나 부자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나, 핍박받는 자나 고난 속에 있는 자, 희생자나 가해자를 포함한 모

든 생명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 되는 희망이다. 또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는 메시지 속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희망을 보게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앙의 경험 속에서 현실화된다고 본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러한 확실성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Moltmann, 2012: 35-36).

신원하도 제임스 거스탑슨(James Gustafson)도 몰트만의 미래적 종말론이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먼 미래의 새 창조만을 기대한다고 봄으로써 몰트만의 종말론적 윤리는 현실과의 연속성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윤리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신원하, 2000: 380, 384).⁸⁾ 그러나 몰트만에 의하면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종말론적 미래는 미래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현재이다 이와 함께 종말론적 미래는 현재를 현존하는 미래로 만든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는 이 땅의 현재의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예수를 뒤따름의 윤리이며, 예수를 뒤따름의 윤리는 그의 미래를 앞당겨 선택하는 윤리라는 것이다(Moltmann, 2012: 38). 몰트만은 “우리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 상에서 죽음에 이른 그의 헌신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한다면 예수의 산상설교 속에서 토라의 메시아적 해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Moltmann, 2012: 38). 이로 보건대 그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현재의 삶에 대한 주장은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가운데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와 모든 만물의 새 창조

8) 몰트만은 “세계의 종말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계시록은 “보라 내가 새것을 창조하노라(히브리어로 bar)”가 아니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히브리어로 asa)”라고 말한다. 이미 창조된 것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자가 그 피조물 속으로 자기 자리로 안식 속에 오심을 의미한다. 그의 함께 하심(schechina)이 하늘과 땅 안으로 오실 것이고 그것들을 모두 새롭게,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속에 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비추고 변모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Moltmann, 2000: 190). 이러한 주장은 위의 거스탑슨의 몰트만에 대한 견해가 올바른 견해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탠리 그렌츠(Stanley J. Grenz, 1997)도 그의 저서에서 몰트만이 미래를 현재에 대한 모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현재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를 앞당겨 선취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희망의 윤리를 위한 미래의 종말론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Moltmann, 2012: 38).

따라서 몰트만이 그의 저작의 마지막 편인 희망의 윤리에서 주장하는 희망론은 온 세계를 향한 희망론이다. 그의 희망론은 온 세계의 모든 생명을 포괄하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희망론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의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평화와 사랑의 노래이다.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춤추게 한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다.

IV. 결론

몰트만이 그의 첫 저서인 희망의 신학을 미래적 지평에서의 종말론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저서인 희망의 윤리를 변화시키는 종말론이라는 테제로 그의 전 신학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의 종말론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윤리라는 것이다. 그의 희망의 윤리는 이 땅의 모든 생명에 대하여 존엄한 가치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에 의의가 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지평을, 교회를 넘어 사회 제반의 윤리와 더불어 생태로 전진하게 하며, 우주적인 지평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것은 종말론을 윤리학의 지평으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또한 희망의 윤리의 기본 개념은 미래를 앞당겨 선취하는 윤리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순간마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말론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깨어 있음 속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를 뒤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선취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종말론은 미래의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며, 이 땅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 땅에 충실하다는 것이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창조적인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몰트만의 종말론이 미래적 종말론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적인 종말론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종말론은 미래적 종말론과 현재적 종말론의 중

합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귀결된다.

이상으로 몰트만의 희망의 윤리라는 마지막 저서를 통한 신학의 여정은 생명이 가지는 절대적 긍정의 가치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게 한다. 비록 그의 신학적 논의가 비판할 점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있는 그 원천으로서의 소망은 결코 소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절망의 끝에서라도 생명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으로 솟아오른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죽어가는 비참한 생명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기도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회권 (2006). 『성서주석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형민 (1999).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적 인권론.” 『한국개혁신학』 제6권. 시작면-마지막면.
- 손규태 (2001). 『개신교 윤리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신원하 (2000). “종말론과 사회윤리.” 『성경과 신학』 제27권. 시작면-마지막면.
- 정기철 (2000). 『종말론과 윤리』. 서울: 한들 출판사.
- 홍순원 (2005). 『헬무트 킬리케의 신학과 윤리』. 서울: 컨콜디아사.
- Aristoteles (2008). 『니코마코스 윤리학』. 조대웅 역. 서울: 돌을새김.
- Brunner, Emil (2003). 『정의와 사회질서』. 전택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Calvin, J. (1536).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고영민 역(2006). 『기독교 강요 1』. 서울: 기독교문사.
- Gustafson, J. (1981). *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 Vol. 1 : *Theology and Eth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ltmann, J. (2012). *Ethics of Hope*. Minneapolis: Fortress Press.
- _____. *Ethik der Hoffnung*. 곽혜원 역(2012),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2008). *Sein Name ist Gerechtigkeit*. 곽혜원 역 (2011).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서울: 21세기교회와 신학포럼.
- _____. (2003). *Im Ende - der Anfang*. 곽미숙 역 (2006).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2000). “세계의 종말에 계신 하나님” 이용주 역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1993). *Theology of Hope*. Minneapolis: Fortress Press.
- _____. (1975).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 이상호 역. 『새생명』. 서울: 새생명사.
- Rawls, John (1988).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외역. 서울: 서광사.
- Stanley J. Grenz & Roger Olson (1992). *20th Century Theology*. 신재구 역 (1997). 『20세기 신학』. 서울: IVP.
- Thielicke, H. (1966). *Theological Ethics*. Volume 1: *Foundatio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ABSTRACT

A Critical Essay on Ethics of Life through Moltmann's Ethics of Hope

Mag-Mi Kim (Soongsil University, Ph.D.)

This article aims at finding out hope for life, especially through Moltmann's work, 『Ethics of Hope』. It is the very respect for life that in his ethics of hope he is emphasizing against the devaluation of life in a sign of the times.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as a methodical approach, a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Moltmann's works will be adopted.

This article shows the following. The first is that the dignity of life comes out through the nature of God's image. The second that eternal life to be filled is revealed through Christ who has come as life. The third that responsibility in the form of community solidarity is required to respect life. The fourth that the dignity of human life is not the ultimate goal itself. Rather it should reach to the reverence for nature and the universe in the creation community. The fifth that through justice, peace and love saving life Christians can witness hope by which is able to begin anew in any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by practicing life oriented towards justice, peace and love, the new creation will establish true Shalom on earth. The sixth that eschatology, especially which changes life through ethics of hope, can change this world. As a result, in this article, it will be clear that hope saving life will be found in correlation between eschatology and social ethics.

Key Words: ethics, life, hope eschatology, justice, peace and love

